

CHINA

#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CHINA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주간 심층이슈

## 『2012 중국 미디어 산업 10대 정책 및 사건』

### ◎ 작성 취지

- 2012년 중국 미디어 산업의 최신 정책 및 주요 사건을 조망하여 중국진출 전략 및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

※ 출처 : <전매(传媒)> 잡지 발췌

### ◎ 작성 순서

1. 「2012 중국 미디어 산업 10대 정책」
2. 「2012 중국 미디어 산업 주요 사건」

## 1. 2012 중국 미디어 산업 10 대 정책

### ■ 중국신문출판산업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소견 《我国新闻出版业走出去的若干意见》

- 2012년 1월 9일 신문출판총서(新闻出版总署)는 2012년 “1호문건” - 《중국신문출판산업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소견, (이하 약칭: 소견)》을 통해 기존의 해외진출(走出去)을 지원 하던 정책을 전면 분석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을 반포함. 이는 중국 신문출판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 방위적 분포전략을 발표한 최초의 문건임
- 《소견》은 중국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함
  - “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년)” 기간 말까지 저작권 수출 7,000건 달성
  - 수출입 비율을 2:1로 끌어올려 균형 달성
  - 디지털 출판 상품과 서비스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및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 달성
  - 도서 수출량 1,150만권(부, 장, 집) 달성
  - 수출액 4,200만 달러 달성
  - 인쇄서비스 수출 규모 1,000억 위안 달성
  - “12차 5개년 발전계획” 말까지 신문출판산업의 해외진출 정책 완비
  - 신문출판기업의 해외 투자규모 제고
  -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브랜드 육성
  - 실력 있고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해외진출 대표기업 양성
  - 신문출판업의 고급 출판전문 인재 양성
  - 해외진출의 국제적인 환경 조성
  - 중국 신문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보급력, 영향력 강화
- 이 밖에도 《소견》은 신문출판자원의 자원분배 최적화를 위한 ‘신정책(新政)’을 제시 함
  - 출판미디어기업의 해외시장을 겨냥한 외국어 간행물 창간을 지원하며 그에 상응하는 출판자원 배분;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출판 비즈니스 중인 비공유제기업(非公有制企业), 중외합자기업에 특수정책 지원
  - 정부의 “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 출판 목록 선정에 해외진출 출판목록의 수량과 종류 추가
  - 신문출판기업의 고위직책 선정 평가 조건에 해외진출과 관련 심사 평가 기준 추가
  - 해외 인쇄가공업무가 기업 영업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해외 인쇄가공업무의 매출액이 2,000만 달러 이상인 인쇄 기업은 국가인쇄복사 시범기업으로 인정

## ○ 논평

- 현재 신문출판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추진은 중국 문화의 소프트파워를 높이고 중화 문화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필연적으로 요구됨. 국가 공공외교를 발전시키고 국제사회 인정 및 이해의 중요한 수단임. 신문출판산업 강국을 건설하고 문화산업을 국민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조치임. 모든 산업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신문출판업의 해외진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현실적으로 기회의식과 위기의식을 강화하며 각종 유효한 조치들을 취하여 신문출판업의 해외진출을 강력히 촉진함
-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신문출판산업은 해외진출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둠. 저작권 무역수지 적자가 점차 감소, 저작권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 디지털 출판 수출 강세, 인쇄가공 서비스 수출 무역 흑자 및 업계 우위 강화, 기업과 자본의 해외진출 가속화, 해외진출 경로 확대, 대외 전문 인력 강화 등. 이 과정에서 신문출판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실행 업무를 맡고 있는 신문출판총서는 적극적으로 신문출판 기업들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해외진출 경로 확장을 위해 매년 40여 개가 넘는 국제도서박람회의 기업참가를 조직함
- 정책적, 자본적 측면 모두 신문출판산업은 전례 없는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음. 중국 공산당 18대 인민대회의를 통해 “문화강국(文化强国)” 전략을 한층 강화시켰고, 당 중앙 국무원은 해외진출에 관한 정책 방침을 시행함. 실력 있는 신문출판 기업들로 하여금 신흥시장의 주도적 위치를 점하도록 하고 새로운 고급기술을 통해 신문출판산업의 해외진출에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오고 새로운 사명을 제시함

## ■ 위성TV 종합 채널 프로그램 관리강화에 대한 소견 《关于进一步加强. 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管理的意见》

- 광전총국(广电总局)은 2012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위성TV 종합 채널 프로그램 관리강화에 대한 소견 (이하 약칭: 소견)》을 시행함. 이는 최근 TV라디오 업계 내 가장 중대하며 영향력 있는 정책임
- 《소견》은 위성TV종합채널로 하여금 뉴스보도위주의 종합채널에서 뉴스, 경제, 문화, 과학, 교육, 어린이,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송출 비율을 조정하여 뉴스 형태의 프로그램의 일간 송출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일부 프로그램의 송출 시간을 조정하도록 실시함. 이로써 프로그램의 과도한 오락화 및 저속화 현상을 방지하고 시청자의 다양화된 시청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됨
- 《소견》은 획일적인 프로그램과 지나치게 많은 맞선프로그램, 오디션프로그램, 연예프

로그래밍, 게임프로그램, 예능프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방송 송출 시간을 제한하도록 명시함. 또한 각 TV라디오 송출 기관은 사회이익을 우선순위로 하며 사회이익과 경제이익의 유기적 통합을 고수하도록 함. 이와 더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프로그램 종합 평가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함

- 《소견》은 “3불(三不)” 규정을 제시함. 프로그램 시청률 순위발표, 단순한 시청률을 기준으로 한 퇴출제, 시청률로 방송기구와 프로그램의 우열을 가리는 행위 금지. 이 밖에도 산업자체의 자율적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사회 관리감독을 지지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프로그램을 표창하며 수입 프로그램의 관리 강화를 요구함

## ○ 논평

- 한때 시청자들은 “리모컨으로 채널 한 바퀴를 돌리면 프로그램이 모두 비슷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곤 했음. 이로 인해 TV프로그램의 획일화는 《소견》출범의 본의가 됨. 업계는 《소견》에 대해 우려를 표했었으나, 사실상 《소견》의 출범은 전혀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오히려 시청률과 시청 점유율이 크게 증가함
- 실제로 《소견》실시 이후 위성TV 종합 채널은 프로그램 창조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프로그램 편성을 더욱 잘 구성하였고 프로그램 구조 역시 더욱 합리적으로 전환되었음. 콘텐츠에 있어 뉴스에서 예능프로까지, 다큐멘터리에서 토크쇼까지 맞선프로에서 가수 오디션 프로까지 프로그램 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졌음. 각 채널의 우위요소와 포지셔닝 역시 한층 강화되었음
- 많은 사람들이 《소견》을 “오락프로 제한 명령”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광전총국 대변인은 광전총국은 건전한 오락프로그램 제작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기에 사람들의 이러한 지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함.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속물의 제한”이라고 해야 함. 일부 프로그램의 일부 장면들이 저속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 가정 내 분쟁에 관한 토론 혹은 맞선 프로그램에서 고의적으로 개인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격양된 의견을 방치하는 등 모두 관리 및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 광전총국의 위성TV종합채널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조정은 중국 TV로 하여금 2012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기발랄한 새로운 기세에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음

## ■ 출판미디어그룹 개혁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소견 《关于加快出版传媒集团改革发展的知道意见》

- 2012년 2월 26일 신문출판총서는 《출판미디어그룹 개혁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소견 (이하 약칭: 소견)》을 발표함
- 《소견》은 총 8개 부분 32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 출판미디어그룹의 발전 전략 방향을 명확히 하고 출판미디어기업의 발전 촉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함. 또한 출판미디어그룹의 발전에 관한 지도사상, 원칙요구와 주요 목표를 제시함. “3개혁 1강화(三改一加强)”를 중심으로 출판미디어그룹의 개혁 발전의 핵심임무를 세분화하고, 출판미디어그룹의 해외진출을 장려·지원하며 출판미디어그룹 발전의 보장 대책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함
- 《소견》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말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인문, 교육, 과학기술의 출판미디어그룹을 지원하여 연 매출 200억 위안 이상의 대형 출판미디어그룹을 다수 육성하며 신화서점의 지역 통폐합을 추진하고 전국적인 대형 국영발행그룹을 설립할 것 등을 제시함
- “출판미디어그룹의 전략적 개편의 적극적인 추진(积极推进出版传媒集团战略性改组)”은 《소견》의 핵심 내용임. 출판미디어그룹의 M&A 및 기업 간의 전략적 협력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것.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말까지 연 매출 200위안 이상의 대형 그룹의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소견》은 출판자원의 출판그룹에 대한 편향된 정책을 제정하고 실현할 것.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출판미디어그룹의 소재 행정지역을 벗어나 설립한 출판 저작권 회사를 지원; 지역적 범위를 벗어난 ‘외형경영’을 시도하는 출판미디어그룹에 대해 출판자원을 우선 배치함;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비공유제문화기업은 정부승인 이후 개별적으로 출판자원으로 배치 가능함

## ○ 논평

- 출판미디어 그룹의 개혁발전 가속화는 사회주의문화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날로 증가하는 정신문화에 대한 대중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신문출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제사회발전을 가속화함. 또한 국가 경제사회 발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문출판업의 발전 방식을 전환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이루고 전반적인 실력을 높이며 대외개방의 새로운 추세에 적응하여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내부 응집력과 대외 영향력을 높이고 국가문화 소프트파워를 높임
- 현재 신문출판산업은 심화된 개혁과 가속화되는 발전이라는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음. 출판미디어그룹은 신문출판업 개혁발전과 중화문화의 해외진출 추

진의 핵으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음

- 문화강국 건설을 목표로 출판미디어그룹은 과학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방식의 전환을 뼈대로 하고 심화된 개혁을 동력으로 하며 과학진보와 자주 창조로 개혁, 개편, 개조 및 관리강화를 중심으로 하여 자원을 재통합시키고 최적화된 구조로 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출판미디어그룹의 과학발전 시스템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력을 높여 출판미디어 그룹의 개혁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

### ■ 차세대 인터넷 발전 “12차 5개년 계획” 발전 건설의 소견 《关于下一代互联网“十二五”发展建设的意见》

- 2012년 2월 29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등 부서는 공동으로 《차세대 인터넷 발전 “12차 5개년 계획” 발전 건설의 소견 (이하 약칭: 소견)》을 발표함.
- 《소견》은 다음과 같은 발전 목표를 제시함: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내 인터넷 보급률을 45%이상으로 확대, 3망융합(三网融合; 방송, 통신, 인터넷 등 3개 네트워크의 융합) 실현, IPv6 광대역 접속자 2,500만 이상 달성, IPv4와 IPv6의 주 업무 연동 실현, 고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양의 주소 확보. 차세대 인터넷 이론연구, 소프트웨어 개발, 설비제조, 응용서비스 등에서 최고를 실현하고 인터넷 발전에 대한 응용서비스와 단말장치의 지원력을 높여 체계적인 표준시스템 마련을 추진함. 완벽한 인터넷 및 정보안전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및 정보안전 수준을 높임. 인터넷 기업의 정보 흐름의 종합 에너지 소모율을 40% 이하로 낮추며 인터넷설비 제조 산업의 만 위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의 에너지 소모율을 15%이상 감축함. 국제영향력이 큰 차세대 인터넷 연구기관 및 주력 기업들을 조성하여 3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 투자 수출 촉진과, 정보산업, 첨단기술 서비스업, 경제사회발전의 방사작용을 한층 더 확대 시킴
- 또한 《소견》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발전 목표를 제시함: 중국은 향후 세계 선진 수준의 인터넷 기초 설비를 조성하여 차세대 인터넷 시대로의 안정적인 과도기를 거침. 인터넷 보급률 확대, 디지털 이용 격차 대폭 감소, 주요 분야의 핵심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갖추고 중국 인터넷의 발전을 실현하도록 함

### ○ 논평

- 인터넷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과 매우 밀접한 중대한 정보 기초설비이며 인터넷발전 수준은 이미 국가 종합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새로운 상황에서 기

술번혁과 산업발전의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재 인터넷 네트워크 기초에 근거하여 혁신을 이루고 풍부한 인터넷 주소 자원과 선진설비, 에너지 절약, 안전 및 신용의 차세대 인터넷 네트워크를 발전시킴

- 더욱 많은 정보량과 다양화된 업무 응용을 제공하여 인류와 인류간의, 인류와 물질간의, 물질과 물질 사이의 소통을 스마트하게 하여 사회 생산생활에 필요한 더욱 견실한 정보기초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강력한 정보화 사회 건설, 국가안전 수호,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
-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은 경제구조조정과 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가속화하고 완벽한 체계 시스템을 통해 정부 투입을 확대하고 창조능력을 높여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시장 환경을 최적화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온라인 정보기초 설비 건설, 핵심 상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 온라인 사용 및 업무혁신, 네트워크와 정보안전 보장, 이론연구 및 기술극복 임무를 가짐
- 이에 《소견》은 구체적인 타임테이블과 로드맵을 제시함: 2013년 말까지 현재 상용 시범 단계에서 IPv6 네트워크의 소규모 상용화 시범지역을 지정하고 이용자와 응용에 있어 IPv6 주소를 우선 할당함. 성숙한 상업 모델과 기술 진보 노선을 형성하여 IPv6네트워크의 분배를 철저히 준비함.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 구조 전환 추진과 기술연구 작업을 확대함
- 2014~2015년은 전면 상용화 분배 단계로 IPv6네트워크의 대규모 분배 및 상용화 작업이 전개될 것이며 새로운 이용자와 응용에 있어 IPv4 주소의 분배를 점차 중지할 것임. 또한 삼망융합을 이루어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검증을 통해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산업 혁신 발전의 준비를 갖추

#### ■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수정초안) 《中华人们共和国著作权法(修改草案)》

- 2012년 3월 31일 신문출판총서(국가저작권국, 国家版权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수정초안) (이하 약칭: 저작권법)》을 발표하고 사회각계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 중
- 2012년 7월 6일 《저작권법》은 국가저작권국을 통해 《저작권법》(초안2차 원고)로 공개됨. 2차 수정에서는 기존 원고에서 3조항을 삭제하고, 3조항을 추가하고, 48개 조항을 수정하였음. 이 중 27개 조항은 내용을 수정하였고, 21개 조항은 부분적으로 문자를 수정함
- 2차 수정은 권리내용을 간소화하였고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세계 각 지역과 국가의 입법과정을 참고하여 방영권을 취소하고 이를 공연권에 포함시킴
- 기존 원고 중 방송권과 인터넷정보 전달권의 규정을 전달매개를 중심으로 하는 비전달 방식을 기초로 함. 과학기술 발전에 완벽히 부합하지 못하는 특히 “3망융합”의 현황과 추세에 따라 방송권의 사용을 비교대식으로 전달하고 정보네트워크 전달권을 고대식으로 전달하며 해결 이행 중의 정시 방송과 인터넷 생방송, 중계방송 등의 문제점을 해결
- 재산권부분에 컴퓨터 프로그램 수정권이 편입될 것을 고려하여 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권한이 각색권으로 편입됨
- 추속권(追续权)<sup>1)</sup>에 대한 조항이 단일 조항으로 지정 될 것 (제12조), 세계 각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추속권의 권리범위의 제한을 경매방식의 환입행위로 함
- 이번 동영상작품, 미술작품, ‘고아저작물’의 보호, 직무공연, 실연자 권리, 실연자 및 녹음 제작자의 녹음작품 방송, 라디오방송국, TV방송권리, 저작권의 합리적 사용 제도, 기술보호, 민사책임 등 관련된 조항에 대해 개선하고 보충하였음

## ○ 논평

- 《저작권법》의 반포 이후 22년간 총 두 차례의 수정을 거침. 1차 수정은 2001년 10월로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본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수정함. 2차 수정은 2010년 2월로 세계무역기구의 중미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결정을 위해 수정함
- 상기 두 차례 법안 수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피동적인 수정: 두 번의 법안 수정 모두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계무역 기구의 판정 이행을 위해서 수정되었음
  - 부분적인 수정: 두 번의 법안 수정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조건을 만족시키고 세계무역기구의 판정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수정 과정이었으며 《저작권법》에 부분적인 수정만이 진행되었음. 따라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은 주도적이고 전면적이며 체계적으로 《저작권법》을 수정하지 못함.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뒤이은 중국 시장경제제도의 수립. 저작권 법률제도의 상대적인 안정성은 과학기술, 사회변혁 등 끊임없는 발전 추이와 격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 현재 시행중인 《저작권법》은 이미 현재의 중국 정치, 경제, 화, 사회사업의 끊임없는 발전 변화와 새로운 흐름에

1) 추속권(追续权): 예술작품의 제작자 및 권리 계승인이 경매 혹은 중개인을 통해 작품을 판매할 때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제작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저작권법》의 수정은 피할 수 없는 추세임

- 이번 《저작권법》의 수정은 사회각계각층의 관심을 이끌어 냈음. 《저작권법》수정 전문위원회가 발족된 뒤 총 4번의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고 3월 31일부터 7월 6일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1차 의견수렴에서 총 1,60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2차 의견수렴은 200건이 넘는 중국 외 지역의 의견이 접수됨
- 이번 수정의 기본 방향은 “1개의 이념을 고수하고 3개의 원칙을 따르며 3개의 효과를 추구한다(坚持一个理念、遵循三个原则、追求三个效果)” 임. 즉,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두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념과 “독립성, 평형성, 국제성”의 세 가지 원칙을 따르며 “고효율, 고품질, 최고수준”의 효과를 추구함
- 1년 3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법안 수정 팀의 리더그룹은 정성껏 지도하였고 초안 작성자들은 부단한 노력을 다해 《저작권법》(3차 수정법안)이 순조롭게 완성됨. 3차 수정법안의 초안은 기존의 법안과 다른 4가지 특징이 있음: 체제구조의 뚜렷한 변화, 권리 내용의 전면적인 증가, 권한위임 시스템과 시장거래규칙의 중대한 조정, 보호력 강화. 초안은 시장경제 요구에 한걸 적응하였으며 현재 저작권법 제도에 대한 과학기술 발전이 직면한 도전에 더욱 순응하고 저작권법 보호의 국제 규정에 더욱 적응하였음

#### ■ 민간자본의 출판영업활동 참여 지지와 관련한 세부시행 규칙 《关于支持民间资本参与出版经营活动的实施细则》

- 2012년 6월 28일 신문출판총서는 《민간자본의 출판영업활동 참여 지지와 관련한 세부시행 규칙 (이하 약칭: 규칙)》을 발표함. 《규칙》에 의하면 신문출판총서는 민간자본의 인쇄복사기업, 출판 상품 발간 경영활동, 디지털 출판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전함
- 《규칙》의 가장 파격적인 정책은 민간자본의 도서출판경영활동과 당 기관지의 경영업무 참여를 지지하는 것임. 《규칙》은 민간자본의 문화기업 투자설립을 지지하고 주제 기획, 콘텐츠 제공, 협력 프로젝트, 국유출판기업의 부서가 되는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 경제, 교육 참고서, 음악예술, 어린이서적 등 전문도서 출판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또한 상장된 국유 출판 미디어 그룹의 증권시장 자금조달을 통해 출판 경영활동에 민간자본 참여를 지지함. 국유출판 미디어 기업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지지하고 민간자본의 질서 잡힌 개방을 실현함
- 해외진출에 있어 《규칙》은 민간자본의 해외진출 출판 경영을 지지하여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음향작품, 디지털출판물 등 출판 상품의 수출 업무와 해외 사무소와 지점을 개설하고 신문과 정기 간행물 제작, 상점 개업 등 출판 발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승

인을 통해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생산 판매되는 외국어 출판물에 대해 특정 출판권을 부여함

- 이 밖에도 《규칙》은 민간자본의 저작권 대리업무 등 중개기관 설립과 저작권 무역업무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힘; 민간자본이 투자 설립한 문화기업은 기업 소재지의 신문출판 행정관리 부처의 신문출판 개혁 및 발전 프로젝트 신청을 통해 국가 문화산업 발전 장려금을 신청 하도록 지지함; 민간자본의 출판산업단지 및 산업지구 건설을 지지하고 프로젝트 준비, 자금지원, 세금우대 정책 등에 있어 국유자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함

## ○ 논평

- 《규칙》의 출범은 민간자본의 문화건설 참여를 충분히 불러일으켰으며 출판 산업의 과학발전을 촉진시켰고 사회주의문화발전과 번영을 추진하였음. 현재 출판 산업의 발전은 매우 빠르나 민간자본의 경영활동 참여가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큰 힘이 되었음
- 신문출판총서가 발표한 《2011년 신문출판산업 분석 보고서(2011年新闻出版产业分析报告)》에 의하면 전국 15.3만개 신문출판기업 법인 중 민간기업의 수는 약 81.2%이고 인쇄복사기업, 출판물 발간기업의 경우 민영기업의 매출액이 각각 86.3%, 62.9%임
- 《규칙》이 명시한 “출판 산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지속적인 개방(持续向民间资本开放出版业)”은 민영기업의 발전 확신을 높였음. 일부 업계인사들은 이는 민영기업에 대한 인정과 격려이며 민영기업이 더욱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표명함. 전문가는 “정책 변천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신문출판총서의 민영정책은 확실히 기존의 것을 타파하였다”고 분석함
- 출판 산업 각 분야에 민간자본 유입의 지지와 격려를 통해 민간자본 진입상의 장애물들을 철저히 제거하였으며 산업 전반적인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음. 또한 중국 문화산업 시스템상의 결점들을 상당부분 개선하였으며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더욱 합리적이고 최적화 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 ■ 인터넷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동영상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关于进一步加强网络剧、微电影等网络视听节目管理的通知》

- 2012년 7월 9일 인터넷드라마와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동영상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 광전총국과 국가인터넷정보부는 공동으로 《인터넷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동영상물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이하 약칭: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현재 건전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 인터넷문화, 온라인 콘텐츠 건설사업의 주요한 일환으로서 정부는 네트워크 보급 확산과 시대적 정신을 구현하며 진실과 아름다움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들이 즐겨 듣고 즐겨 보는 인터넷드라마와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동영상물 프로그램의 생산 제작을 지지한다고 밝힘
- 《통지》는 온라인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으로 하여금 개설자의 책무를 이행하고 대중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상영되는 인터넷드라마와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동영상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함. 또한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협회로 하여금 산업조직의 직책과 기능을 발휘해 회원기업들이 상영하는 인터넷드라마,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동영상물의 심사인력에 대한 심사와 양성을 확대하여 회원기업들의 건전하고 유익한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 보급을 유도할 것을 요구함. 정부관리부처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기업이 《통지》이행을 감독할 것과 법률에 의거하여 기업 시장진입과 시장퇴출을 관리 할 것을 요구함

## ○ 논평

- 최근 인터넷드라마와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이 새로운 온라인 문화 경영방식으로 빠르게 발전 중이며 국민정서를 풍부히 하는 문화생활,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 건설에 있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에 저속한 콘텐츠, 과장성, 폭력성, 선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부는 전편에 걸쳐 욕설을 내보내고 고의적으로 저속한 화면을 드러내며 폭력적인 장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음.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로 하여금 법에 의거하여 청소년들의 신체·정신 건강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수한 인터넷드라마와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동영상물의 제작 및 송출하고 있는 동영상 업체로부터 정부부처가 신속한 제재를 가해 불순한 프로그램이 우수한 프로그램의 시간과 공간을 점하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사회 대중문화 상품으로서 온라인 발전의 법규와 특징에 순응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주류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는 정부 관리 부처의 정책 제정의 입장이 될 것임. 《통지》는 국가가 우수한 인터넷 드라마와 마이크로무비 등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함
- 또한 《통지》는 규범화된 발전 대책을 더욱 확실히 하고 아래와 같이 명시함
  - 첫째,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기업은 “웹사이트 개설자가 책임진다 (谁办网谁负责)”의 원칙에 의거하여 인터넷 드라마와 마이크로 영화 등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에 일률적으로 자체심사를 거친 뒤 방영할 것
  - 둘째,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 산업협회는 산업 자체 검열을 실시할 것

- 셋째, 정부관리부처는 법에 의거하여 업체의 시장진입과 시장퇴출을 관리할 것

#### ■ 정기 간행물 편집부 체제 개혁에 관한 실시 방법 《关于报刊编辑部体制改革的实施方法》

- 《비정치적 정기 간행물 출판 기업 체제 개혁에 관한 중앙 행정부서, 국무원 행정부서의견(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关于深化非时政类报刊出版单位体制改革的意见)》의 주요 의미에 의거하여 2012년 7월 30일, 신문출판총서는 《정기 간행물 편집부 체제 개혁에 관한 실시 방법(이하 약칭: 방법)》을 제정함.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통해 정기 간행물의 출판 활동을 벌일 수 있으며 단일화된 국내 출판번호를 획득할 수 있음. 그러나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기 간행물 편집부 체제개혁은 따로 안배함
- 《방법》은 정기간행물 편집부의 체제개혁은 반드시 중앙 정기간행물 출판기업 체제개혁 전체부서와 관련부처의 요구에 의거하고 정기간행물 산업구조를 조정하며 간행물 산업 발전방식 결합을 전환하고 간행물 산업 경영의 집약화를 달성하고 대형 간행물 미디어 그룹을 배양하여 전통 간행물산업의 디지털화, 온라인화, 현대 미디어산업으로 전환하여 결합시키며 또한 간행물의 시장진입과 시장퇴출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학과 간행물 자원을 결합시켜야한다고 밝히고 있음
- 개혁을 통해 간행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간행물 산업의 ‘작고, 분산되고, 마구잡이식’의 구조적 폐단을 철폐시키고 간행물 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 동시에 간행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간행물 출판의 보급력을 강화시킬 것을 명시함
- 《방법》은 원칙적으로 간행물 편집부 체제를 남겨두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현존하는 간행물 편집부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추어 다른 개혁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 밝힘

#### ○ 논평

- 중국 정기간행물 편집부 체제는 계획경제 시기의 유산으로 정기간행물 산업의 체제 개혁 중 명확한 개혁 방법이 없었음. 《방법》의 출범으로 신속히 각 정기간행물 편집부의 개혁의 방향이 명확해짐
- 편집부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방법》은 국가와 관련된 비시정류의 정기간행물 출판기업의 체제개혁의 각 정책이 모든 정기간행물 편집부 체제 개혁에 이용될 것이라 강조함
- 《방법》은 중앙 각 부서와 부처, 각 지역이 실질적으로 결합하여 간행물 편집부 체제 개혁의 각 항목 정책에 대한 법률 제정 연구와 정책을 지속할 것을 지지함. 정부의 각종 학술 간행물에 지원에 대한 기금을 적극 획득하여 국가 기초학과와 첨단과학의 핵심 과학기술 간행물, 학술 간행물의 국가 자연과학, 사회과학, 출판기금지원 범위에 들

## 도록 합

- 문화산업 발전 전문 자금, 문화발전 전문 자금 등의 선전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을 적극 획득하고 핵심 과학기술 간행물 및 학술 간행물 출판 기업을 지지함. 핵심 과학기술의 정기간행물과 학술 간행물의 발전 세금 우대정책을 적극 획득. 국가급 학술 수준 및 학술 표준의 평가 시스템, 국가 핵심 과학기술 간행물 발간, 학술간행물 디지털 플랫폼 건설, 국가 핵심 과학 기술 간행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핵심 과학기술 간행물과 학술간행물의 지지도를 높임

### ■ 신문출판 정보화 “12차 5개년 계획” 시기 발전 계획 《新闻出版信息化“十二五”时期发展规划》

- 2012년 12월 12일 신문출판총서는 베이징에서 “12차 5개년 계획” 시기 신문출판업 정보화 발전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은 2015년 전까지 ‘신문출판 전자 국가행정업무 종합 플랫폼’, “신문출판데이터베이스”, “출판발행정보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의 3대 국가 급 정보화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전계획은 2015년까지 온라인망 구축과 자원의 통합과 공유, 효율적인 업무협조, 표준화된 시스템이 구축된 정보화 구조 건설을 제시함. 그 중 신문출판 디지털 국가행정업무 종합 플랫폼은 신문출판산업의 관리감독 및 서비스 정보 시스템, 국가 저작권 관리감독 플랫폼, 온라인 출판 관리감독 시스템, 정기 간행물 출판 관리감독 시스템, 출판물 수출입 관리 플랫폼, 신문출판 프로젝트 정보관리시스템, 국제 표준 도서 번호 실명 신청정보 시스템을 통합 조정하여 데이터 저장 관리 교환 등을 하나로 한 국가 급 신문출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임
- 출판발행정보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은 도서관, 대중 등 단말기 이용 고객에게 도서목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포함할 뿐 아니라 출판기업 및 발행기업에 상품정보 발표, 구매, 반품, 결산 및 매출 데이터 교환의 공유 시스템을 제공하여 산업정보의 “1회 가공, 전 과정 공유(一次加工, 全程共享)”를 실현할 것임

### ○ 논평

- 현재 정보화는 한 국가 생산력 발전 수준, 종합국력 및 국제사회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또한 한 국가의 미래 글로벌화 무한 경쟁 중 생존공간이며 발전우위를 점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인류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침. 최근 몇 년간 신문출판 정보화는 빠른 발전을 거두었고 신문출판 행정관리 능력 및 서비스수준 역시 향상되었음

- 또한 정보기술산업이 빠르게 응용되고 있고 신문출판 산업의 구조조정 및 개선에 있어 중요한 지탱 작용을 하고 있음. 전자 행정 국가업무의 점진적 추진으로 각 신문출판 행정부처의 관영 웹사이트들은 정보공개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실시간 연결 업무 및 상호교류 서비스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고 공공서비스 능력 또한 상승함
- 산업정보화 건설은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신문출판 기업의 정보화 의식 또한 점차 제고되었고 기업 정보화 기초 환경 역시 개선되었음. 기업의 자가 업무 정보 시스템과 관리 정보 시스템의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정보기술기업이 신문출판 산업사슬 중 각 업무참여의 범위와 정도를 확장하며 풍부한 디지털 출판 경영방식을 탄생시켜 신문출판산업의 새로운 경제성장점이 됨
- 18대 정보화 사회 건설은 소강사회 조성의 중요한 목표로 명시함. 이러한 배경아래 신문출판 정보화 건설 추진은 신문출판 정부 직책과 기능 전환, 행정효율 제고, 신문출판 체제 개혁, 산업 번영 및 발전 촉진, 신형 출판 업무 경영 방식 탄생, 구조조정 추진, 신문출판 공공 서비스 확장,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음. 《신문출판 정보화 “12차 5개년 계획” 시기 발전 계획》의 발표는 신문출판산업의 정보화건설이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하며 신문출판업의 번영과 발전에 기념비적인 의미를 가짐

#### ■ 온라인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決定》

- 2012년 12월 28일, 11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는 《온라인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이하 약칭: 결정)》을 심의해 통과시켰으며 결정 통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함
- 중국 정보화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응용, 정보시스템의 빠른 발전 중 온라인정보 보호가 직면한 문제와 취약 부분에 대해 국민 개인 전자정보 보호에서 출발하여 스팸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온라인 개인 신상 관리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 이용고객의 의무 및 책임, 정부 관련 부처의 감독관리 책무 등에 있어 명확한 규정을 언급함
- 또한 정부 보호가 국민 개인정보를 변별해야 하고 국민 개인 사생활 전자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함. 어느 단체나 개인이든 국민의 전자정보를 훔치거나 다른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획득하고 이를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명시함
- 아울러 《결정》은 온라인 서비스 기업과 기타 기업, 기관은 국민 개인의 전자정보 수집 시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 원칙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목적 방식 범위를 명시해야 하고 수집대상자(개인사용자)의 동의를 거쳐 위법행위를 범하지 않고 법률법규에 의

거 수집 사용정보에 대한 쌍방계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결정》은 국민 개인에게 감독과 신고, 고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 사회적인 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부처에는 온라인 활동 관리감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정 의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함. 또한 이번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법적 책임을 규정함

- 《결정》의 핵심은 중국이 현재 직면한 온라인 활동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온라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자연인과 기타 조직 간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국가안전 및 사회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음

## ○ 논평

- 나날이 발전하는 온라인 시대에 인터넷이 각 가정에 보급됨에 따라 전 국민 인터넷 시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 인터넷 정보는 우리에게 편리함,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터넷 정보 안전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최근 마구잡이식의 정보수집과 사용, 인터넷 사기 그리고 불법적인 정보유출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침입 또는 공격하여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 인터넷정보를 사고파는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행위는 국민 개인과 법인 등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고 있으며 국가안전 및 사회공공 이익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사회 각계각층의 인터넷 정보의 법적 보호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인터넷 정보 보호와 관리 강화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자 전반적인 발전 추세이며 법질서의 필수불가결 요소임. 《결정》의 출범은 민심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 국가정세와 국제관례에 부합되는 규정임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심사 통과시킨 《결정》은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회의가 주장한 온라인 사회관리 강화 실현을 관철시킨 것으로 법에 의거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체계화 하라는 당 요구에 대한 주요 조치임. 《결정》의 출범은 국민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체계적인 중국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인터넷 시대의 정보보호에 법적 방패를 단 효과를 볼 것임. 《결정》을 현실에 철저히 실현시켜 온라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유출과 개인정보 매매를 막아 중국 네트워크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더욱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함



## 2. 2012 중국 미디어 산업 주요 사건

### ■ 신문출판총서 신문사기 공갈 관리 및 대가성 신문 보도 행위 철폐 확대 (新闻出版总署开展打击新闻敲诈治理有偿新闻专项行动)

- 2012년 5월 신문출판총서, 전국 “불법 출판물 소탕(扫黄打非)” 업무부서, 신문출판총서 내 설립된 중앙 기율 검사 위원회의 기율감사부처는 공동으로 《신문의 사기 공갈 관리 및 대가성 신문 보도 행위 철폐 확대에 관한 통지 (이하 약칭: 통지)》를 발표함. 2012년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개월간 전국범위의 신문 사기행위를 적발하고 대가성보도의 특정행위를 관리한다는 방침임. 이번 특정 관리 대상은 불법 신문기관과 해당 기관 직원, 취재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행위를 범한 기자, 취재를 통해 사리를 탐하는 신문기자 및 기업의 뇌물을 수수한 기자, 신문보도의 형식으로 광고성 기사를 실은 신문출판업체 및 관련 직원 및 대가성 신문보도 등을 포함함
- 《통지》는 각 신문출판 행정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특정행위에 적발 업무에 대한 부서를 안배하고 책임자를 포함한 행동조직을 설립하여 공동 업무 팀을 조직하도록 요구함. 특정행위 업무 방안을 제정하여 신문 뇌물 갈취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대가성 신문보도에 대한 법 집행을 통해 정상적인 신문취재 질서를 유지하고 신문기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합법적인 신문취재 권익을 보호함. 불법적으로 출판 중인 신문, 잡지가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는 전형적인 안전 역시 조사 처리해야 함

### ○ 논평

- 최근 많은 신문업 종사자들은 직업윤리를 이행하고 신문 종사자의 이미지를 지키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의 사람들이 '노출'의 대가성 보도와 금전 갈취 등의 위법행위를 범하며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신문의 사회적 이용 혹은 취재를 빌미로 개인 사리사욕을 취하는 등의 사건이 불거지고 있음
- 신문출판총서는 신문 산업에서 폭로된 문제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위조 간행물, 기자사칭, 위조신문 등 특정행위를 적발하고 신문취재 질서를 규범화하고 산업풍토를 바로잡는 것은 조화롭고 안정적인 사회 구축의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

### ■ 시청각 공연자 보호 외교회의 《시청각 공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체결(保护印象表演外交会议签署《视听表演北京条约》)

- 2012년 6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주최하고 신문출판총서, 베이징시인민정부 주관한 WIPO 외교회의가 베이징에서 폐막하며 《시청각 공연에 관한 베이징 조

약(이하 약칭: 조약)》이 정식 채택됨. 동 《조약》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154개회원국과 48개국제기구 등 총 202개 대표단과 721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간의 토론과 협상, 자격 심사과정, 조항수정 등 일련의 건설적인 작업 뒤 체결됨. 《조약》은 세계적 범위 내의 시청각 공연자들의 지식재산권보호의 기본적, 총체적, 시스템적 문제에 전반을 해결하는 첫 조약으로 시청각 미디어 공연자들의 창작, 분업, 협력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자와 연기자, 작가 등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조율함

## ○ 논평

- 동 《조약》은 공연자들의 권리보호에 대한 국제조약으로 영화 등 작품의 공연자에게 부여되어 법에 입각하여 해당 공연작품의 이미지, 동작, 소리 등 공연활동에 대한 권리를 금지하고 허가할 수 있음. 동 《조약》의 체결로 국제 공연자들의 저작권보호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고, 세계 각국의 문화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중국을 포함한 유구한 문화역사의 개발도상국 전통 민간 공연예술 발전을 도모했다는 것에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님. 《조약》은 중국이 발족한 첫 국제 지식재산권 조약으로 중국 저작권사업의 국제지위와 베이징의 국제사회 지명도를 크게 높였으며 중국의 저작권법 제도의 완성과 중국 문화의 해외진출 촉진을 더욱 유리하게 함

## ■ 인민왕 상장(人民网上市)

- 2012년 4월 27일 인민왕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됨, 상장 30분 후 주가 약 73.6% 폭등함
- 인민왕은 꾸준히 주가 상승세는 상당 부분 핫머니의 조작과 개입으로 분석되며 핫머니 자본이 유입되게 한 가장 큰 투자매력은 인민왕의 독특한 주주구조로 판단됨. 2010년 6월 갱신된 공상자료에 의하면 인민왕발전유한회사(人民网发展有限公司)의 등록자본금은 1.12억 위안으로 그 중 《인민일보(人民日报)》와 자매지인 《환구시보(环球时报)》 양 기업의 출자금이 각각 9,045만 위안 1,629만 위안으로 약 80%와 15%의 지분을 보유함
- 구조조정 이후 인민일보사와 환구망이 보유한 지분은 78%로 여전히 높은 비중임, 탄탄한 자금력과 강력한 주주는 시장에 확신과 안정감을 주어 인민왕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를 집중시키고 있음
- 영향력의 증가와 완벽해진 업무시스템으로 인민왕의 각 항목 별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2년 3분기간 실현된 누적 매출액은 4.56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5.4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1.28억 위안을 기록함.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은 7,636.75만 위안이었음

- 2009년 10월 국무원 신문부처는 첫 번째로 선정된 핵심 신문웹사이트의 기업 전향 제도를 개혁하여 신문 웹사이트의 상장을 촉진 통지를 하달함. 각 핵심 신문 웹사이트는 통지의 주요 의미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기업 상장을 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 중임. 인민왕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 성공 이후 인민왕을 벤치마킹 한 사례가 늘고 있음. 신화망(新华网), 치엔룽왕(千龙网), 베이팡왕(北方网), 동베이왕(东北网), 다중왕(大众网), 저지양온라인(浙江在线), 화성온라인(华声在线), 스촨온라인(四川在线) 등 신문 웹사이트들이 상장을 계획하고 있음

## ○ 논평

- 인민왕 상장은 중국 핵심 신문 웹사이트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실질적으로 한발 내딛었음을 의미함. 신문 웹사이트의 상장은 자본시장의 최적화된 자원분배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 주류 미디어의 여론 선도 능력을 견고히 함
- 인민왕의 성공적인 상장과 함께 중국 신문 웹사이트의 상장러시가 불고 있음. 신문 웹사이트의 적극적인 상장은 온라인 등 신홍 미디어 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자본운영을 통해 더욱 크고 강력해지며 뉴미디어를 통한 전통미디어의 효율적인 구조전환에 도움이 될 것임

## ■ “경화클라우드신문“ 세계최초 발행(“京华云报纸”全球首发)

- 2012년 5월 17일 《경화시보》는 베이징에서 클라우드신문 발행 기념식을 개최함. 클라우드신문을 통해 독자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촬영하고 클라우드 리더기를 통해 해당 신문과 관련된, 풍부한 내용의 미디어 자료와 배후의 사건전말을 볼 수 있음. 이는 기존의 인쇄미디어가 갖는 '독일가언(读一家之言)'의 형태를 타파하고 관련된 신문의 상세하고 정확한 보도를 접할 수 있게 됨. 《경화시보》클라우드 전략의 중요한 한 과정으로 “클라우드 신문“은 미디어 융합으로 신문에 인터넷 인자를 투입하였고, 기존의 인쇄미디어가 갖는 보도 나열의 형식, 전송방식, 운영 패러다임을 변화시킴
- “경화 클라우드신문”은 데먼스트레이션 효과를 가져왔음. 11월 장강일보 신문그룹의 모든 미디어의 클라우드신문 플랫폼이 정식 오픈함. 장강일보 신문 그룹 하의 《장강일보(长江日报)》, 《무한석간(武汉晚报)》, 《무한조간(武汉晨报)》 등 7개 신문을 한자리에 집결시키며 《경화시보》, 《양조일보(扬州日报)》등을 이어 또 하나의 클라우드신문기업이 탄생함

## ○ 논평

- 《경화시보》가 추진한 클라우드신문의 이념과 실천은 미디어수단, 이념의 변혁이었으

며 업계의 격렬한 관심을 일으킴. 이동통신이 보급화된 지금 신문업의 구조전환은 더 이상 새로운 명제가 아니며 업계는 구조전환에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 중이었으나 줄곧 실행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음. 클라우드신문은 전통 인쇄신문의 생산방식을 변화시켰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인쇄미디어의 콘텐츠와 온라인 콘텐츠를 융합하여 정적인 인쇄신문의 콘텐츠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제약적이었던 기존의 지면을 확장시켰으며 입체화된 광고를 통해 디지털 비즈니스와 밀접히 연관된 뉴비즈니스 모델을 파생시킴. 수많은 시도를 통해 클라우드 신문은 신문업 구조전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함

### ■ 《인민일보》 전자신문 게시판 설치 만 개를 넘어서 (《人民日报》电子阅报栏色典布局破万个)

- 인민일보의 전자신문 게시판(터치스크린 패널)이 상하이 엑스포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인민일보사는 적극적으로 전국 각 지역에 게시판을 배치하고 있음. 2012년 인민일보사와 관련부처는 전략적 협력 안에 서명하여 당정기관과 문화교육부의 두 시스템을 설치함. 2012년 12월 25일 기준 인민일보사의 전자신문 게시판은 10,080개에 달함
- 해방일보사(解放日报), 후베이일보사(湖北日报)등 신문사 역시 적극적으로 전자게시판 설치를 추진 중. 해방일보의 전자신문 게시판은 우선 상하이우정국, 은행, 전신 등 산업의 공공영업지점에 진입하였고 일부 영업지점의 전자게시판의 설비에 개성을 살린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
- 5월말까지, 후베이일보 디지털미디어유한회사는 후베이성 관할 지역 내 600여개의 전자신문 게시판을 설치함. 전자신문 게시판은 정부의 정무로비와 은행로비, 자동차거래 로비 등에 위치해있으며 이는 매일 약 5만부의 신문이 발행되는 양과 맞먹는 수준임

### ○ 논평

- 전자게시판은 <신문출판업 “12차 5개년 계획“ 시기 발전 계획(新闻出版业 “十二五“时期发展规划)이 지정한 신문출판산업의 핵심 건설 사업 중 하나임. 《계획》은 “12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과 신문사(그룹)의 실행, 사회 역량의 참여, 시장화 운영 모델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정류장, 재래시장, 백화점, 광장 등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10만개의 신문게시판과 전자신문 게시판을 설치할 것을 명시함
- 게시판에 등록될 신문은 정당 기관지, “삼농“, 과학보급, 문화생활, 건강과 관련된 신문을 위주로 함. 인민일보가 설치한 전자게시판이 만 개를 넘어섰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간의 융합이 이미 산업화라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 함. 디지털자원의 빠른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읽기 방식은 더 이상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전자게시판은 선진화된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독

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콘텐츠와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또한, 전자게시판은 삼망 융합을 도입하여 3G기술과 쌍방향 광고라는 새로운 형태로 미디어 시스템을 선보여 신문사의 미디어 영향력과 경영수준을 높임

## ■ “혀끝 위의 중국“ 다큐멘터리의 새 시대를 열 (舌尖上的中国开创纪录片纪元)

- 2012년 5월 <혀끝 위의 중국(舌尖上的中国, a Bite of China)>의 첫 방송 이후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중국 최고 영향력 있는 다큐멘터리로 선정됨. <혀끝 위의 중국>은 CCTV가 다큐채널이 방영한 첫 번째 푸드 시리즈 다큐멘터리로 중국 국내 최초로 고화질 영상장비로 촬영된 대형 푸드 다큐임. 2011년 3월 첫 촬영을 시작으로 국내 60여개 지역에서 대규모로 촬영되었으며 홍콩, 대만, 마카오 등 국내 각 지역을 포함함
- <혀끝 위의 중국>은 풍부하고 심오한 중화미식문화의 다방면에 대해 소개했으며, 특히 해외 시청자들에게 중국 일상음식의 변화발전과, 천차만별의 음식습관, 독특한 미각심미에서 생존지혜를 지는 동방의 생활가치관을 알림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음식문화로부터 전통과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함
- 2012년 <혀끝 위의 중국(舌尖上的中国)>, <고궁100(故宫100)>, <중국의 길(中国之路)>, <화폐(货币)> 등 우수한 다큐멘터리의 방영으로 시청자들은 실제기록이 가져오는 따뜻한 온기, 감동, 흥분을 느낄 수 있었고, 한편으로 웨이보와 각종 온라인 게시판 등의 매체를 통해 관심을 표현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함.

## ○ 논평

- <혀끝 위의 중국>이 일으킨 다큐멘터리 열풍은 중국 다큐멘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음. 2012년 12월 7일 국가라디오TV영화총국, 광둥성인민정부가 주관한 2012 중국(광저우)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총 65개 국가와 지역이 참여하여 1,488개의 작품이 출품됨.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제 응모작품 중 “금홍면상(金红棉奖)”에 응모한 다큐멘터리는 총 509 작품이었음. <혀끝 위의 중국>은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으며 <선생님(老师)>, <탄절부대(折弹部队)>, <천추백련(千锤百炼)>은 최고중국감독상을 수상함
-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중국 다큐멘터리의 문화 전달력과 국제 영향력이 이미 국제 수준을 갖추었음을 나타냄. 중국 다큐멘터리의 콘텐츠 생산에 만족스러운 현상을 의미함. 일반적인 시각을 이용하여 위대함을 드러내고 감정이 스며든 렌즈를 통해 중국 보통사람들의 진실된 사회를 기록하고 중화역사문화와 문화전통을 보여줌. 중국 다큐멘터리의 산업화 제작 모델을 만들고 다큐멘터리로 하여금 본연의 기능을 되찾게 하는데 성공함. 다큐멘터리라는 고급 주류 문화상품으로 하여금 사회 주류 문화가치의 응집력

과 흡입력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함. 시청자에게 맛있는 마음의 양식을 제공함

### ■ 인민일보 웨이보 오픈(《人民日报》微博上线)

- 2012년 7월 22일 ‘@인민일보’ 계정이 인민왕, 시나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동시에 첫 번째 글이 올려짐. 이는 인민일보의 공식 웨이보가 인민왕과 시나 웨이보 플랫폼에 정식 오픈 되었음을 의미함. 10일간 약 17만 팔로워를 달성했으며, 빠른 속도로 관심대상으로 추가되고 있음 이는 인민일보 공식 웨이보가 인쇄매체 웨이보들의 초점이 되게 함
- 인민일보의 공식 웨이보는 “권위 있는 목소리, 주류가치, 참신한 표현“을 목표로 설정하여 ‘참여, 소통, 기록시대’의 책임과 사명, 콘텐츠 설계 및 인민일보의 관점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며 국내외 중대 이슈와 서비스 정보,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탐방, 생중계, 조사 등 활동을 구성하며 사회이슈를 주시하고 대중에 부응함. 해당 웨이보 오픈 이후 팔로워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12월 26일 인민일보의 시나웨이보 팔로워수는 343만 명을 넘어섬

### ○ 논평

- 《인민일보》의 웨이보 오픈은 웨이보에 대한 중국 주류미디어의 응용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의미함. 최근, 많은 미디어들이 관영 웨이보를 오픈하고 있음. 2012년 11월 19일 해방일보의 웨이보가 오픈됨. 오픈 당일 팔로워는 신속히 증가함. 2012년 11월 4일 기준 시나, 텅쑤웨이보의 웨이보를 오픈한 미디어기업은 총 1,704개이며 그 중 정당 기관지는 229개, 지역신문 1,033개, 산업신문 442개임
- 2012년 11월 29일 1차 중국 미디어 웨이보총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됨. 이번 회의는 2011~2012년간 중국 미디어웨이보의 콘텐츠경영, 상업화 과정, 판매수요 등에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함. 본 회의는 웨이보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특성을 지녔다고 판단하고 웨이보의 강력한 발전 추세는 더욱 많은 미디어로 하여금 웹사이트를 통한 발언을 더욱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여론 선도력을 높이고 영향력을 더욱 높였다고 평가함

### ■ Voice of China (中国好声音收热棒)

- ‘더 보이즈 오브 차이나(The Voice of China, 中國好声音)’ (이하 ‘보이즈 차이나’)는 절강위성TV(浙江卫视)와 Xingkong(星空)미디어 소속업체인 Canxing(灿星)이 연합하여 제작한 음악전문의 대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임. 2012년 7월 13일 보이즈 차이나 1회가 절강 위성TV를 통해 방송시작 이후 매회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음. 보이즈 차이나는 시청자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신적인 즐거움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마

음속 싶은 곳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게 함

- 이는 현재 사회 주류의 가치 추세에 바로 부합하는 점으로 대중의 정신상품의 심미요구를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광범위한 호평을 받았음. 보이시 차이나의 성공은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전문적이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한 덕분으로 보이시 차이나가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짐. 이렇듯 전심전력하는 제작 태도는 제작사의 치밀하고 신중한 프로그램 제작 표준 제정에서 나왔다.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뜨려진 보이시 차이나는 많은 광고 협력 업체들을 불러 모았고 Aiqiyi(爱奇艺)를 예로 해당 웹사이트의 보이시 차이나의 매회 조회수가 수천 만 건에 달했으며 이미 수천만 위안의 광고 수입을 거둠
- 보이시 차이나는 기존의 제작과 송출이 분류된 이윤 분배 방식을 변화시킴. 기존의 “방송국이 정하는 이윤”에서 ‘시장 개발이윤’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프로그램 생산라인 역시 변화됨. 협력업체는 ‘공동투자, 리스크 공동분담, 공동이윤’의 방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전개하여 상당부분의 리스크를 감소시킴. 이밖에 기존의 프로그램이 유명 교수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과 달리 보이시 차이나의 스타 지도자들은 함께 산업체인 방식을 형성하여 스타들로 하여금 장기 참여를 유도, 이로써 프로그램의 스타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 논평

- 제작과 방송이 분리된 배경하에 생산라인 구축부터 미디어융합 배경하에 통합 마케팅으로 이어 문화진흥계획하의 산업사슬 조성의 주류가치가 이끄는 우수 프로그램 제작, 어떤 의미에서 《Voice of China》는 하나의 우수한 오디션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중국 예능프로그램 혁신에 새로운 샘플을 제공함.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TV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분리의 성공한 모델임
- 《Voice of China》의 성공은 사람들에게 TV프로그램 시장의 큰 발전 여력을 확인시켰으며 프로그램의 성공은 견실한 콘텐츠라면 프로그램 흥행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함. 또한 시장 운영 방식 역시 업계에 많은 시사점을 남김